

JAPAN

일본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JAPAN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사무소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주간 심층이슈

『2012년 상반기 출판 동향 및 트렌드』

◎ 작성취지

- 일본 출판계 동향은 콘텐츠 비즈니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콘텐츠의 원작을 제공하는 원천산업인 동시에 콘텐츠 밸류 체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일본출판계의 최근 동향 및 트렌드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출판물의 일본진출은 물론 다각적인 콘텐츠비즈니스 전략수립시 유의미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참고문헌 : 닛케이엔터테인먼트(2012년 8월호), 오리콘 스타일 등

◎ 작성순서

- 1. 2012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 2. 2012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트렌드

1. 2012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 2012년 상반기 남녀별 베스트셀러

○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 2012년 상반기의 종합 순위(TSUTAYA 조사, 2012년 1월 1일~6월 10일)를 확인해 보면,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작품이 순위를 결정하고 있음. 남성들의 베스트셀러 1위는 종합 랭킹에서는 18위에 머물러 있음.

※TSUTAYA는 일본 최대 음악·영상 렌탈&판매체인으로 서적 등도 취급, 아래 오리콘 서적 부문 조사결과도 참조요

- 남녀 합계 전체 순위를 살펴보면, 여성들의 구입동향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 종합 1~4위는 여성의 베스트셀러 순위와 동일함.
- 남녀 모두에서 잘 팔리며 상위 10위에 진입한 것은 5위 <배를 짜다(船を編む)>, 6위 <일본인도 모르는 일본어 3 축! 졸업편(日本人も知らない日本語 3 祝! 卒業編)>, 8위 <오래살고 싶다면 의료와 가깝게 지내지마(大往生したけりゃ医療とかかわるな)>의 3권이었음
- 그 외 7권은 여성 독자 비율이 78~90%로 높은 서적이 차지함
- 남성의 1위 “일류 남자, 이류 남자” 는 여성 독자 비율이 14.3%로 대단히 낮았고 전체 순위는 18위에 그침

표 1 | 2012년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타이틀
1	가시키 히로미(檉木裕実)의 가비댄스로 다이어트
2	잠들기 전 5분 한 달이면 10Kg이 빠지는 허리베개 다이어트
3	가시키식 가비댄스 즉석 다이어트!
4	체지방계 다니타의 사원식당-500칼로리의 만복식당
5	배를 짜다(船を編む)
6	일본인도 모르는 일본어 3 축! 졸업편
7	가비댄스로 부분 다이어트!
8	오래살고 싶다면 의료를 멀리해라!(大往生したけりゃ医療とかかわるな)
9	(속) 체지방계 다니타의 사원식당
10	인생이 두근거리는 정리의 마법(진짜 인생은 정리 후에 시작된다)
11	좌절하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하나의 습관(折れない心をつくるたった一つの習慣)
12	50살이 넘어도 30대로 보이는 생활(50才を越えても30代に見えるいき方)
13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ナミヤ雑貨店の奇跡)
14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있다
15	고비토 대백과(こびと大百科)
16	도모구이(共食い)
17	듣는 힘(聞く力)
18	일류 남자, 이류 남자 ~두각을 나타내는 남자의 조건~
19	공복은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空腹が人を健康にする)
20	잠자는 것만으로! 다이어트! 골반베개 다이어트

오리콘 발표 금년 상반기 서적 랭킹 종합

순위	서적명	추정판매부수
1	잠자는 것만으로! 골반베개 다이어트	599,817부
2	체지방계 다니타의 사원식당 500칼로리의 만복(滿腹)정식	488,210부
3	인생이 두근거리는 정리의 마법	404,410부
4	수수께끼 풀기는 디너 후에 2	397,364부
5	DVD부록 가시키 히로미 가비댄스로 간단 다이어트	394,620부
6	DVD부록 가시키 히로미 가비댄스로 즉석 다이어트	344,094부
7	오래살고 싶다면 의료를 멀리해라	341,519부
8	속 체지방계 다니타의 사원식당 훨씬 맛있는 500칼로리의 만복정식	331,377부
9	배를 짜다	295,213부
10	일본인도 모르는 일본어 3 축! 졸업편	293,561부

출처 : 오리콘(2012년 4월 현재 1,907점포 기준)

○ 2012년 여성 상반기 베스트셀러

- 베스트셀러라고 해도 독자층은 세대와 성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읽고 있는지를 알면, 그 작품의 매력도 파악할 수 있고 최근 트렌드를 읽을 수 있음
- 순수문학과 문고판에서 각각의 인기 베스트셀러를 분석해 세대별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함
- 건강/다이어트 관련 서적이 상위 30권 중 16권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금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종합 랭킹을 남녀별로 보면, 여성들이 선호하는 베스트셀러는 1년 전부터 인기가 높은 건강/다이어트 책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여성편)



순위	타이틀	저자	비고
1	가시키 히로미(櫻木裕実)의 가비댄스로 다이어트	가시키 히로미 (櫻木裕実)	누계 400만 부를 돌파한 시리즈 최신 3작(2월 발매). 현재 49살의 카리스마 트레이너가 직접 모델이 되어 사진과 DVD로 보디 메이크를 위한 댄스를 설명. 제3편에서는 하반신 다이어트에 중점을 둠. 독자는 20~40대 여성이 중심. 여성 89.3%
2	잠들기 전 5분 한 달이면	후쿠츠지 도시키	2011년 2월 발매한 롱셀러. 부록의 골반 베개를 허리 밑에 넣고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10Kg이 빠지는 허리베개 다이어트	(福辻鋭記)	가 되고 변비도 해소할 수 있는 손쉬운 다이어트 법이 인기 비결. 여성 85.3%
3	가시킴식 가비댄스 즉석 다이어트!	가시킴 히로미 (櫻木裕実)	2010년 6월 발매한 DVD가 부록으로 있는 제1탄. 탈런트에게 보디 메이크를 가르치고 있는 카리스 마 트레이너가 고안해낸 댄스가 수록. 여성 89.6%
4	체지방계 다니타의 사원식당	주시회사 다니타	2010년 1월 발매. 1식 500kcal의 메뉴는 계속 먹 으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독자는 20~40대 여성이 중심. 여성 78.2%
5	가비댄스로 부분 다이어트!	가시킴 히로미 (櫻木裕実)	2011년 2월 발매된 DVD가 부록으로 있는 제2탄. 1일 3분만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 는 ‘부분 다이어트 수업’ 등을 수록. 여성 90.5%
6	일본인도 모르는 일본어 3 축! 즐업편	헤비구라(蛇 蔵)& 우미노 나기코(海野 凧子)	일본어학교의 선생님과 외국인 학생의 즐거운 대 화에서 일본어를 재발견할 수 있는 코믹 에세이. 독자는 30~40대 여성이 중심. 여성 65.6%
7	(속) 체지방계 다니타의 사원식당		2010년 11월에 발매된 시리즈 제2탄. 새로운 안 주 메뉴도 있음. 올 1월에는 [마루노우치 다니타 식당]도 오픈해서 인기를 모음. 여성 79.1%
8	인생이 두근거리는 정리의 마법(진짜 인생은 정리 후에 시작된다)	곤도 마리에 (近藤まり絵)	일본 최고의 정리 컨설턴트인 저자 곤도 마리에 가 ‘두근 두근거리면서 옷버리기’ 등 새로운 정리법을 제안하며 정리·정돈·수납의 모든 것 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음. 저자만의 ‘정리 수납법’은 저자가 15세부터 연구하던 정리 정돈 방법의 정수로서, ‘한 번 정리하면 두 번 다시 어지르지 않는 정리법’을 말함. 단순한 공간 정 리법이나 수납법에서 벗어나 ‘설렘’이라는 감 정을 기반으로 물건과 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 는 방법을 알려줌. 더불어 잘못된 정리 상식부터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들을 위한 버리기 원 칙, 절대 실패하지 않는 물건별 정리법, 즐거운 공간을 디자인하는 수납 컨설팅 등을 소개. 독자 는 20~40대 여성이 전체의 6할. 여성 79.1%
9	배를 짜다(船を編む)	미우라 시온 (三浦しおん)	서점 대상을 수상하면서 매출이 급증함. 사전편 집부를 무대로 단어와 편집자들의 이야기를 그리 고 있음. 독자는 20대에서 50대까지 폭넓음. 여성 58.6%
10	잠자는 것만으로! 골반베개 다이어트	마츠나가 미츠코 (松永みつこ)	2011년 8월 발매되어 붐을 일으킨 골반베개 중 의 한 권. 여성 84.9%

○ 남녀별 베스트셀러로 본 상반기 트렌드

- 베스트셀러를 남녀별로 분석하면, 금년 상반기의 트렌드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음.

- 먼저 상반기 여성들에게 팔린 책을 ‘TSUTAYA’의 데이터로 소개
 -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상위 10권을 보면 건강/다이어트 책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았음
 - 건강/다이어트관련 서적은 10위 이내에 3권이 랭크된 <가시키 히로미(檉木裕実) 씨 감수의 다이어트 책> 시리즈, 2권 랭크된 <체지방계 다니타의 사원식당> 시리즈, 그리고 출판사에서 나온 각종 <골반베게>책 등, 발매부터 1년 이상 팔리고 있는 롱 셀러가 적지 않음. 이는 최근의 건강 붐을 반영하고 있음
 - 이들 건강/다이어트 책은 공기를 넣어 사용하는 골반 베게와 댄스를 보여주는 DVD 등 부록이 충실한 것도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
 - 건강 관련 서적 이외에 실용서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았음. 문예 관련 서적은 상위 30권 중 4권만이 랭크인 되어 있음
 - ‘서점대상’을 받은 <배를 짜다(船を編む)>, 히가시가와 도쿠야(東川篤哉)씨의<수수께끼 풀기는 디너 후에 2>는 남녀 모두에게 높은 인기.
- ※서점대상이란 2004년에 설립된 서점대상 실행위원회가 운영하는 문학상임. 일반문학상과는 달리 작가 문학자는 선고를 하지않고 ‘신간을 취급하는 서점(온라인 서점 포함)의 스태프의 투표에 의해 결정
- 특이한 것으로는 일본의 최대 아이돌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인 자니즈의 NEWS 멤버가 집필한 소설<핑크와 그레이>는 압도적으로 여성들에게 팔림
 - 판타지 그림책인 <고비토츠크>시리즈가 14위와 20위에 2권이 랭크
 - 비호감 이미지이면서도 귀여운 캐릭터 ‘고비토’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아서 학부모들이 구입하고 있음

	
<p><핑크와 그레이></p>	<p><고비토츠크></p>

○ 남성 상반기 베스트셀러

- 비즈니스/자기 개발 관련 서적이 상위를 차지함. 또한 인기절정의 여성아이돌 그룹 AKB48의 사진집도 2권 랭크됨. 여성 베스트 셀러와 동일하게 건강 관련 서적도 인기가 높았음
- 남성 1위 “일류 남자, 이류 남자”는 다른 서점 체인에서도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TSUTAYA’가 적극적으로 점포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남성의 상반기 종합 1위를 차지함
- 여성의 건강/다이어트처럼 강세를 보이는 장르가 남성에서는 ‘비즈니스/자기 개발’ 관련 서적이었음
- 6위에 랭크인한 프로야구 감독출신 오치아이 히로미치(落合博満)의 <사이하이(采配)>(역자주 : ‘지휘’의 의미)와 23위의 하세가와 마고토(長谷川誠) <마음을 정리하다>, 25위 <안빵 손정의 전>까지 포함하면, 상위 30권 중 11권이 이 장르의 서적에 해당됨.
- 건강/다이어트 관련 서적도 여성처럼 많지는 않지만, 6권이나 랭크인 되어 있음
- 메타볼릭 검진이 시작되는 연령대 남성의 건강 지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
 - ※메타볼릭이란 내장지방의 축적을 의미
- 특이한 점은 “50세를 넘어도 30대로 보이는 방법”이 13위에 들어온 점임. 과거 여성용 미용 장르의 테마였던 ‘안티에이징’ (anti-aging)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저자가 직접 광고탑으로 표지에 등장하고 있는 점이 흥미를 끈 것으로 보임.

- 문예서는 여성보다 많은 6권이 랭크인 되었음.
- ‘서점대상’ 수상작인 <배를 짜다(船を編む)>, <이 미스테리가 대단하다(このミステリーがすごい!)> 1위의 <제노사이드※>, <도모구이(共食い)> 등, 구입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라며 화제성 높은 서적을 남성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대중문화 트렌드를 반영하듯 특히 남성들이 선호하는 서적으로는 11위에 마에다 아츠코(前田敦子), 14위 가시와키 유키(柏木由紀) 2명의 AKB48 멤버 사진집이 랭크인 됨

※<제노사이드>: 일본 추리의 필독서로 손꼽히는 『13계단』의 다카노 가즈아키(高野和明)가 6년 만에 내놓은 최신작으로 한국에서는 황금가지에서 출간함. ‘인류보다 진화한 새로운 생물’의 출현에서 비롯한 인류 종말의 위협과 이를 둘러싼 음모를 추리 스릴러와 SF 기법을 통해 풀어나간 작품으로서, 한국 유학생의 활약과 한국의 ‘정’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 등 한국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표 3 |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남성편)

순위	타이틀	작가	비고
1	일류 남자, 이류 남자 ~두각을 나타내는 남자의 조건~	사토나카 다카오 (里中孝生)	동명 문고판을 재편집해서 작년 10월 발매. TSUTAYA에서 올 3월부터 4월까지 매장에서 코너를 설치한 뒤부터 판매가 증가함. 구입자의 85%가 남성으로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젊은 층에서 호응을 얻음. 남성 85.7%
2	배를 짜다(船を編む)	미우라 시온 (三浦しおん)	책방대상을 수상하면서 매출이 급증함. 사전편집부를 무대로 단어와 편집자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음. 독

			<p>자는 20대에서 50대까지 폭넓음. 요시모토 바나나 이래 가장 참신한 작가“, “현재 일본에서 ‘인간’을 묘사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젊은 작가“로 평가받으며 신작을 발표할 때마다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내고, 흡인력 강한 스토리텔링 솜씨를 보여주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남성 41.4%</p>
3	<p>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다 (원제: 『ICH WEISS, WAS DU DENKST』)</p>	<p>토르스텐 하베너</p>	<p>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그 순간, 당신의 생각이 곧 세계가 된다! 이 책을 통해 나와 관련된 다른 이의 생각을 읽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규칙들과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멘탈리스트가 결코 TV속 인기 미드에만 나오는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세상이 10이라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들었던 것은 1에도 못 미칠 것이다. ‘토르스텐 하베너’는 바로 그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감추어진 세상을 바로 보는 제3의 눈을 제시한다. 마인드리더의 수법을 소개. 남성 59.2%</p>
4	<p>일본인도 모르는 일본어 3축! 졸업편</p>	<p>헤비구라&우미노 나기코 (蛇蔵&海野風子)</p>	<p>일본어학교의 선생님과 외국인 학생의 즐거운 대화에서 일본어를 재발견할 수 있는 코믹엡세이. 독자는 30~40대 여성이 중심. 남성 34.4%</p>
5	<p>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ナミヤ雑貨店の奇跡)</p>	<p>히가시노 케이고 (東野圭吾)</p>	<p>다양한 고민을 상담해 주는 잡화점을 무대로 한 이야기. 베스트셀러 작가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줌. 남성 독자는 20대에서 50대로 폭 넓음. 남성 49.3%</p>
6	<p>사이하이(采配)</p>	<p>오치아이 히로미치 (落合博満)</p>	<p>프로야구 구단 드래곤즈의 감독으로서 리그 우승을 달성하고 퇴임한 저자가 자신의 “지휘” 비밀을 밝힌 책으로 독자의 8할 이상이 남성, 20~40대에서 인기. 남성 84.2%</p>
7	<p>100엔의 콜라를 1,000엔에 파는 방법 (100円のコーラを1000円で売る方法)</p>	<p>나카이 타카히사 (永井孝尚)</p>	<p>소설 형식으로 마케팅 논리를 소개. 실제 상품을 사례를 이용해 이해하기 쉬움. 독자의 78%가 남성으로 20~30대가 주 독자층. 저자는 기업이 커스터머 마이오피아에서 벗어나 본래의 고객 중심주의로의 회귀를 바라고 있음. 고객에게 자사만의 독자적인 가치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주장함. 남성 78.2%</p>
8	<p>오래살고 싶다면 의료를 멀리해라! (大往生したけりゃ医療とかかわるな)</p>	<p>나카무라 진이치 (中村仁一)</p>	<p>3명 중 한 명은 암으로 죽는다고 하지만,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고 죽는 사람은 극히 적음. 그 중에서도 암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지 않음</p>

			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가족의 권유로 고문과 같은 치료 끝에 죽는 사람이 대다수임. 현역 의사인 저가의 지론은 “죽는다면 암이 제일 좋다”라는 지론으로 실제로 마지막까지 점액 주사나 산소 흡입도 전혀하지 않는 수백 개의 사례의 ‘자연사’를 지켜봄.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을 제안한 획기적인 책. 독자는 45%, 60대에서 가장 많이 팔림. 남성 45.1%
9	체간력을 높이는 코어 트레이닝 (体幹力を上げるコアトレーニング)	기바 가츠노리 (木場 克己)	유럽 축구 리그의 현역 선수 등 유명 운동선수들의 트레이닝법으로 주목을 받은 ‘코어트레이닝’을 알기 쉽게 해설함. 독자의 7할이 남성, 20대에서 가장 인기가 높음. 남성 70.0%
10	꺾이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오직 하나의 습관 (折れない心をつくるたった一つの習慣)	우에니시 아키라 (植西 聡)	악순환에서 빠져 나오는, 좌절하지 않는 마음을 다시 되찾는 자기 개발 서적. 독자 중 남성이 4할을 차지하고 30대와 40대에서 인기가 높음. 남성 40.1%

<별첨 자료 1>

[표 4] 오리콘 발표 2012년 상반기 장르별 판매 랭킹

비즈니스	서적명	부수
1	인생이 두근거리는 정리의 마법	404,410부
2	마음을 잘 투시하는 방법	262,816부
3	꺼이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오직 하나의 습관	216,750부
4	듣는 힘	202,701부
5	스티브 잡스 1	141,514부
요리	서적명	부수
1	체지방계 다니타의 사원식당 500칼로리의 만복(滿腹)정식	488,210부
2	속 체지방계 다니타의 사원식당 훨씬 맛있는 500칼로리의 만복정식	331,377부
3	가르소네류 먹보 HAPPY 다이어트	129,872부
4	SYUNKON 카페밥	127,123부
5	2012 요리가계부	97,385부
스포츠	서적명	부수
1	사이하이	285,756부
2	마음을 가다듬는다-승리를 낚기 위한 56가지 습관	140,524부
3	나는 자신이 본 것밖에 믿지 않는다	109,259부
4	프로야구 칼라 명감 2012	45,683부
5	2012년 프로야구 선수사진명감	62,259부
여행	서적명	부수
1	루루브 오키나와 '12	61,555부
2	맛푸루 서울 '12	61,066부
3	루루브 교토 '12- '13	58,685부
4	루루브 서울 '12	51,307부
5	도쿄 디즈니랜드 퍼펙트 가이드북 2012년판	47,851부
아동서	서적명	부수
1	해결 조로리 하나오메와 조로리조	229,403부
2	6시간으로 가능! 두 자리수 x 두 자리수 암산	193,882부
3	고비토 대백과	176,814부
4	고비토 관찰입문(1)	149,552부
5	2012년 입학준비 초등학교 1년생 입학직전호	138,875부

출처 : 오리콘(2012년 4월 현재 1,907점포 기준)

■ 문고판 남녀별 상반기 베스트 셀러

○ 문고판 남녀별 상반기 베스트셀러

- 문고판 남녀별 상반기 베스트셀러를 보면, 종합 베스트셀러에서는 여성은 건강/다이어트 관련 서적, 남성은 비즈니스/자기 개발 서적이 상위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문고판 랭킹에서는 소설의 인기 작가/장르를 알 수 있음

-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1Q84>와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 <성녀의 구제(聖女の救済)>는 남녀 모두에서 인기가 높았음.
- 남성 4위의 <신약과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新約とある魔術の禁書目録)>과 5위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俺の妹がこんなに可愛いわけがない)>등, 아스키 미디어웍스가 출판하고 있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이 순위에 들어왔음
- <신약과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新約とある魔術の禁書目録)>과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俺の妹がこんなに可愛いわけがない)>의 두 권은 남성 구입자가 9할을 차지하고 있음
- 같은 장르의 <비브리아 고서당의 사건 수첩> 시리즈 2권은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높았음
-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것은 5위의 <우리들이 있었다(僕らがあった)>와 9위의 <걸즈>였음
- 전자는 동명 인기 순정만화를 원작으로 올해 이쿠다 토마(生田斗真)와 요시타카 유리코(吉高由里子) 주연으로 영화화됨
- <걸즈>도 카리나(香里奈), 아사오 구미코(麻生久美子) 출연의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여성 관객을 모음

[표 5] 오리콘 발표 금년 상반기 코믹종합 판매 랭킹

순위	서적명	부수
1	원피스 65	3,161,123부
2	원피스 66	2,821,277부
3	너에게 전하라 15	1,186,970부
4	NARUTO 59	1,113,081부
5	NARUTO 60	1,045,584부
6	HUNTER X HUNTER 30	965,515부
7	너에게 전하라 16	788,873부
8	푸른 발마사(祓魔師) 8	762,604부
9	진격의 거인	736,761부
10	테루마에 로마에 IV	643,209부

* 출처 : 오리콘(2012년 4월 현재 1,907점포 기준)

[표 6] 오리콘 발표 금년 상반기 문고종합 판매 랭킹

순위	서적명	부수
1	비브리아 고서당의 사건수첩	587,891부
2	1Q84 Book 1 <4월-6월> 전편	487,117부
3	성녀의 구제	479,754부
4	소녀	470,642부
5	비브리아 고서당의 사건수첩 2	446,631부
6	1Q84 Book 1 <4월-6월> 후편	363,230부
7	세 마리의 아저씨	342,298부
8	갈릴레오의 고뇌	298,809부
9	이름없는 독	286,000부
10	왜소(歪笑)소설	285,489부

※ 출처 : 오리콘(2012년 4월 현재 1,907점포 기준)

[표 7] 일본의 주요 문학상

이름	설립년도	내용
아쿠타가와 료노스케 상	1935년	순문학의 신인에게 수여하는 상
에도가와 란포 상	1954년	에도가와란포의 기부를 기금으로 일본추리작가협회가 탐정소설의 장려를 위해 제정한 문학상
다니자키 준이치로 상	1965년	주오고론사가 1965년 창업 80주년을 계기로 작가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이름을 따서 제정한 문학상
나오키 산쥬고 상	1935년	무명/신인/중견작가의 대중소설작품에게 수여되는 상
시바 류타로 상	1998년	시바류타로 기념재단이 주최하는 문예/학예/저널리즘을 대상으로 한 문학상

2. 2012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키워드

■ 캐릭터 노벨

○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캐릭터 소설 인기

- 일본에서 ‘캐릭터노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캐릭터노벨’이란, 엔터테인먼트 소설 중에서도 읽기 쉬운 문체와 언어로 쓰인 무대와 인물이 만화적인 작품을 말함

※캐릭터 소설이란 스토리나 메시지등 보다 등장하는 인물(캐릭터)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소설

- 판타지적인 요소 등이 가미되어 있지만, 현실 사회에 기초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쉽게 즐길 수 있음
- 기존의 일반 문예와 라이트노벨의 중간적 존재인 새로운 장르로 자

리매김하고 있음

※라이트노벨(Light Novel)이란 표지 및 삽화에 애니메이션 풍의 일러스트를 다용하고 있는 젊은 층 대상의 소설(닛케이 BP)

- 캐릭터 노벨로 최근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품으로는 히가시가와 도쿠야(東川篤哉)의〈수수께끼 풀기는 디너 후에〉와 미가미 엔(三上延)의 〈비브리아 고서당의 사건 수첩〉, 미우라 시온(三浦しおん)의 〈배를 짜다(船を編む)〉, 오오누마 노리코(大沼紀子)의 〈한밤중의 빵집(真夜中のパン屋さん)〉 등이 있음
- 그 중에서 아리카와 히로(有川浩)의 〈세 마리의 아저씨(三匹のおっさん)〉은 50세 이상에서도 인기가 높아 명실 공히 어른들을 위한 캐릭터 노벨임

○ 캐릭터노벨은 소설의 왕도

- ‘캐릭터노벨’ 이 인기가 높은 배경과 관련 책과 코믹의 정보잡지인 〈다빈치〉의 편집장은 “커다란 흐름으로써 오락 소설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 있다”고 분석함
- 영화를 예로 들면, 왕도라고 할 수 있는 50~60년대의 할리우드 영화에 대항해 70년대에는 카운터 문화가 등장함
- 하지만, 실험적인 수법도 90년대까지는 거의 다 소개되어 현재는 다시 이전의 왕도로 돌아가고 있음
- 엔터테인먼트 소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 왕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이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음
- 캐릭터 소설에 인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임. 이 풍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SNS의 보급이 있음
- 오늘날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서점의 점원간 정보 공유에 활용되는 등, 인터넷 정보의 영향력이 대단히 큼
- 트위터는 문자수에 제한이 있어, “이런 주인공이 이런 장소에서 활약한다” 라고 단문으로 포인트를 지정한 작품이 취급하기 좋음.
- 캐릭터노벨처럼 포인트를 잡기 쉬운 작품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인기가 높은 것은 직업+연애

- 캐릭터 소설의 개척자로 불리는 것이 금년 6월에 원작 애니메이션 영화<도서관전쟁>이 개봉되어 크게 히트한 아리카와 히로(有川浩)임
- 아리카와 히로(有川浩) 풍의 캐릭터 노벨에는 알기 쉬운 특징이 있다고 지적함
- “두드러진 것이 직업과 연애라는 두 가지 요소이다. 자위대와 도서 특수부대 등 특수한 직장을 무대로 함으로써 세계관을 뚜렷이 나타낼 수 있고, 서브캐릭터도 만들어내기 쉬움
- 일상적으로는 별로 익숙하지 않는 직업과 직장을 묘사으로써 독자의 지적 호기심도 끌어내는 동시에 연애 코드를 통해 공감을 얻을 수 있어 독자는 안심감을 가지고 읽을 수 있음
- 세계적으로 연애에 대한モチベーション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반대로 소설에서는 ‘달콤하다’고 할 정도의 연애가 그려지고 있음
- 한편, 가토가와서점(角川書店)의 편집장은 아리카와 히로(有川浩)의 포지션에 대해 다른 관점을 설명
- 아리카와 히로(有川浩)의 작품처럼 리얼한 세계에 판타지를 더한 작품은 원래 라이트노벨의 장르에서 커버할 수 있음.
- 이것이 라이트노벨이 남성용 모에계(역자주 : 오타쿠문화와 유사) 중심으로 특화됨으로써 여성들이 읽을 수 있는 작품이 일반 문예에 가까운 영역으로 밀리는 형태가 되었다고 분석함
- 라이트노벨 시장의 변화에 따라, 일반 독자의 관심이 캐릭터노벨로 향하기 쉬운 상황이 만들어졌음
- 실제로 대형 서점 등에는 라이트노벨과 일반 문예를 융합시킨 코너를 신설/증설하고 있는 곳도 늘어나고 있음

○ 키워드는 ‘순정 만화적’

- 등장인물을 일러스트화한 커버가 일반화된 것이 캐릭터노벨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
- 이전에는 젊은 층을 위한 작품에 한정되어 있었던 일러스트 표지가 최근 수년 동안 성인도 읽는 역사 소설과 일반 문예에서도 많이 이

용되게 됨

- 일반 독자의 일러스트 표지에 대한 저항감이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요 인물이 표지에 비주얼 화됨으로써 작품의 세계관과 인물 이미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즐거워하는 독자도 적지 않음
- 알 수 없는 소설책의 단점을 일러스트 표지에서 해소할 수 있게 됨.
- 단순히 일러스트를 표지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일러스트를 하나의 패키지로 소설을 판매하는 수법이 보급되고 있음
- 만화를 대단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우라 시온(三浦しおん)은 데뷔 당시부터 작품이 만화적이었던 것도 평가를 받고 있음
- <배를 짜다(船を編む)>는 표지는 심플하지만,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음
- 30대 이상의 만화와 텔레비전 드라마의 황금기에 성장한 세대가 쓴 소설은 엔터테인먼트 지향성이 강하다고 생각됨
- 이런 관점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캐릭터노벨 작가에게 딱 맞음. 만화와 텔레비전의 비주얼적인 발상이 반영된 소설이기 때문에 일러스트 표지와 상호 작용도 가능했던 것임.
- 캐릭터노벨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마니아적인 여성 독자층임.
- 남성작가이지만, 만화에 익숙한 어딘가 여성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음.

	
<p><아리가와 히로의 캐릭터 소설 도서관 전쟁></p>	<p><미우라 시온의 배를 짜다></p>

■ 키워드 2 : 여성 탤런트 관련 서적

- 동성의 “동경” 을 자극하는 포인트

- 출판 불황 중에서도 탤런트 관련 서적은 속속 출판되고 있어 탄탄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
- 작년 말에 발매된 전 후지테레비 아나운서 다카시마 아야(高島彩)의 〈듣기, 웃기, 잇기(聞く 笑う、ツナグ。〉)는 10만 부를 돌파함
- 각 주간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하세가와 리에(長谷川理絵)의 〈원하는 힘(願力)〉은 혹평에도 불구하고 판매 부수를 늘리고 있음
- 한편, 인기 모델이나 탤런트가 자신의 ‘스타일’을 소개하는 포트북이 인기의 한 장르로써 확립되어 있음
- 〈여장하는 여자〉, 〈빗치를 접하는 방법〉 등, 여성들에 관한 저서가 많은 유아마 레이코(湯山令子)씨는 여성 탤런트 서적의 승패는 이 ‘프라이버시 노출도’에 있다고 함
- “지금은 저명인이 블로그에서 자신의 집과 요리, 그리고 사복 등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시대이다. 또한 이것들에 대한 독자의 눈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코디네이트와 자택 인테리어를 스타일리스트에 모두 맡기고 있는 것과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모으고 있는 것은 확연히 구분된다. 이런 페이크가 아닌 탤런트의 센스를 얼마나 많이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 독자에게 지지를 받는 포인트” 라고 밝힘

○ 프라이버시 노출도가 승패를 좌우

- “얼마나 보여줄까?” 라는 키워드는 스타일북 이외에도 공통된 키워드
- 예를 들면, 다카시마 아야(高島彩)의 책에서는 일과 프라이버시에서 호감도를 높이는 행동 방법이 인기 아나운서의 실제 체험에 기초해 서술되어 있고, 하세가와 리에(長谷川理絵)도 과거의 연애 편력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음
-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세상에 내놓는가도 출판에서는 중요한 요소임
- 여성 탤런트의 인기 서적은 결혼/출산 등 사생활에서의 중요한 포인트 시기에 발매되는 케이스가 많음
- 여자 아나운서라면 독립/전직이 중요한 포인트 타이밍임

- 그녀들이 어떻게 ‘행복’을 얻었는지, 독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 정신도 잃지 않고 있음
- 동경하는 존재에 가까워지고 싶고, 바라는 것을 손에 넣어 온 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싶은 이런 여성의 욕구에 리얼하게 대응하는 것이 텔런트 관련 서적의 역할임

■ 키워드 3 : 건강/다이어트 관련 서적

○ 간단한 다이어트와 젊게 보이는 것이 트렌드

- 건강/다이어트 관련 서적은 베스트셀러의 상위 순위에 다수 랭크
-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 독자도 늘어나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최근의 히트 작품의 키워드는 ‘간단한 다이어트’와 ‘젊어지기’임
- 안티에이징을 의미하는 ‘동안’은 지금까지 미용 관련서적의 주요 테마 중의 하나였음.
- 동안은 ‘50살이 넘어도 30대로 보이는 생활’의 히트로 건강 관련 서적의 키워드임
- 저자인 미쿠모 요시노리(南雲吉則)씨는 실제로 50대이지만 30대로 보이는 외관을 전면에 내세워 출판하는 서적마다 베스트셀러를 기록함
- 한편, 쉽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는 것은 다이어트의 영원한 테마임
- 이 장르에서는 이례적인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실은 대단하다! 어른들을 위한 라디오 체조>임
- 담당 편집자에 따르면, 발매 1개월 만에 7판 인쇄 35만 부를 발행함
- 왜 지금 라디오체조인가? 저자인 나카무라 의사가 서포트하는 새로운 체조에 라디오 체조를 접목해 전체 운동을 고안해냄.
- 일본인이려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제대로 하면 전신 운동의 효과가 있는 것에 착목함. ‘정말로?’라고 묻는 의외성이 히트 요인의 하나임